

■ 구례 사는 이주여성 프영씨의 설레는 설

“마~ 고향 가요, 함께 뗏 쇠요”

(베트남어 엄마)

(베트남의 설)

“눈만 감으면 베트남에 계시는 어머니와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프영(26·구례군 광의면)씨는 요즘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열흘만 지나면 꿈속에서 그려온 베트남 가족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만 타국 땅인 구례로 시집온 지도 벌써 2년2개월째. 결혼 이후 처음으로 가는 고향길이다.

베트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뗏(Tet)’으로 불리는 음력 설을 보낸다. 한국에서는 떡국을 먹고 베트남에서는 쌀국수를 먹는 것이 다르지만 설빔을 사입고 세뱃돈을 주는 풍습은 한국이나 베트남 모두 비슷하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이야기꽃을 나눴던 추억에 절절히 되돌아 가슴을 저려야 했다.

그러나 올 설은 다르다. 오는 17일 남편 양건규(49)씨, 아들 현중(생후 13개월)이와 함께 베트남 친정에 가기로 한 것이다. 비록 설 명절 이후의 고향길이지만 7~8년이 지나도 고향에 가보지 못하는 주변 친구들에 비하면 행운이다.

“지난해 아내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막 애녀난 아이 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풍족해진 양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남편 양씨 말처럼 친정에 한번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3주간 체류비만 400만원에 달하고, 선물이라도 하나 마련하려면 비용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이번엔 남편



한국으로 시집온 이후 처음으로 고향 베트남에 설을 쇠러 떠나는 이주여성 프영씨 가족이 베트남 가족들에게 전해줄 선물 박스 앞에서 활짝 웃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가족들 선물 싸놓은 옷상자만 두개

“결혼 후 첫 베트남 고향길 행복해”

장고를 선물할 생각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현지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용돈을 드릴 계획이다.

프영씨는 한국에서는 사이공으로 더 알려진 호치민에서 자동차로 4시간 떨어진 빈롱이라는 중소도시에서 자랐다. 빈롱에는 할머니와 외할머니, 어머니, 오빠 2명, 언니 3명 등이 함께 살고 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손자를 빨리 보고

싶다’는 할머니부터, ‘뭘 먹고 싶냐’고 묻는 어머니, ‘한국 옷을 사달라’고 말하는 언니들까지 모두 프영씨가 도착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프영씨의 마음도 조금해졌다. 출국 날짜가 10일 정도 남았지만 벌써 싸놓은 옷상자만 두 개짜다. 정작 본인의 옷은 아직 준비도 못했다. 조카들 선물에 언니들에게 줄

옷가지, 손가락·젓가락까지. 모두 챙겨가고 싶은 마음에 짐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날마다 연구중이다.

그러나 남편은 정해진 항공화물량을 초과할까봐 걱정이다. 아직은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못해 ‘짐을 다 가지고 가지는 못한다’고 설명해주고 싶지만 아내가 실망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고 귀뻐한다.

“마~(엄마를 뜻하는 베트남어)가 가장 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프영씨는 매일밤 가족과 만나는 행복할 꿈을 꾸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음주운전 백태

광주북부경찰은 올 들어 지난 4일까지 음주 단속을 펼쳐 모두 312명의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하루 평균 8.9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셈이다.

이 중 0.05~0.099%의 혈중알콜농도로 운전 면허가 정지된 운전자는 250명, 0.10%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62명이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

차 문 잠그고 자는 척... 무조건 도주도

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의 행태는 어떨까.

▲시간 끌기형=만취상태에서 차 문을 잠그고 잠 든 척한다. 김모(28·북구 오치동)씨는 5일 새벽 0시 30분께 북구 오치동 한국전력 전 남사업본부 앞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자 자신의 승합차를 인근 주차장으로 몰았다. 경찰관이 음주 측

정을 요구하자 김씨는 차 문을 잠근 채 잠든 척 누워 있었다. 김씨는 무려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하다가 결국 면허취소됐다.

▲도주형=음주단속 현장을 피하기 위해 다른 방향으로 행를 꺾거나 차를 세워놓고 달아나는 형이다. 전모(40·북구 운암동)씨는 지난 3일 밤 10시30분께 북구 중흥동

효동초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피해 달아났다. 전씨는 도주하던 중 마주오던 손모(53)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전씨는 차를 버리고 도망갔으나 결국 손씨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음주측정결과 전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7%로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이 밖에 ▲아부형(“한 번만 봐달라”) ▲과시형(“나, 누군데”) ▲뇌물 공세형(“얼마면 되겠냐”) 등 다양하다. /이충현기자 galee@

편의점 상습 강도 2명 검거

광주북부경찰

광주시내 편의점만을 골라 강도짓을 벌인 20대 용의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5일 손님으로 가 장해 편의점에 들어가 흥기로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은 정모(25·북구 운암동)·이모(25·남구 월산동)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3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M편의점에 들어가 흥기로 종업원 김모(여·23)씨를 위협해 2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광주 도심에서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광주 S.O 동창생인 이들은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결심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뒤, 곧바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편의점 CCTV 화면에 잡힌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이들이 도난당한 상품권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역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충현기자 galee@kwangju.co.kr

승합차-트럭 충돌 14명 사상

4일 밤 10시50분께 함평군 손불면 죽암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36km(목포기점)에서 목포방향으로 가던 75조42XX호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김모·32·경기도 수원시)와 서울88아50XX호 5.5t 트럭(운전자 이모·48·경기도 하남시)이 부딪혔다.

이 사고로 트럭이 넘어지면서 뒤따라던 오퍼러스, 카니발 승합차와 이

따라 부딪혀 오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모(53·경기도 인천시)씨가 숨지고,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트럭을 추월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트럭을 들이받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보조금 15억원 책인

담양 업체대표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부당한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이 돈을 유용한 담양의 모 업체 대표 한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4년부터 3년간 담양군으로부터 신산업 보조금 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이미 끝낸 사업들을 새로 추진할 것처럼 속여 생산설비 구축 명목으로 8억 원을 받고, 물품 구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거나 물품 구입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의 범행은 2006년 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드러났으며 당시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공무원 5명도 주의조치됐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나주 양계장 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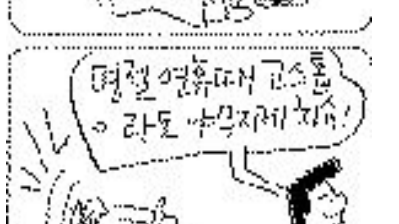
닭 7천여마리 불타

4일 오후 7시30분께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남모(64)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닭 7천여마리와 병아리 3천여마리가 불에 타 죽었으며, 양계장 10개 동(420㎡) 가운데 5개 동(240㎡)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천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계장 안에 있던 석유난로의 불꽃이 바닥에 깔려 있던 왕겨(벼의 겉겨)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나주=정철형기자 chjung@

나원침 (7427) 김장두



렌터카 반납 안내 절도행각 등동

○렌터카를 이용해 고물 절도 행각을 벌여온 형제들이 대역 기간이 지났어도 반납하지 않은 렌터카 때문에 경찰에 걸렸다.

○화순경찰은 5일 전남지역을 돌며 맨홀 뚜껑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남모(35)씨 등 형제 2명에 대해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형제간인 이들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지난해 12월 나주시 공산면의 한 도로에 설치된 맨홀 뚜껑 6개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농기계 5대와 건축자재 등을 훔친 혐의.

○이들은 나주의 한 렌터카 영업소에서 차량을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전남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화순 경찰초소의 차량번호판 관복기에 도난차량으로 찍히면서 경찰의 검문검색에 걸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www.kcc.com

www.kcc.com

Large advertisement for 'World Insurance' (세계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a large graphic of a globe. Text includes '세계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and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계보청기'.